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김수연*

— <차 례> —

1. 들어가며
2. 운영은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
3. 운영의 자살심리 : 상실-고독-슬픔-우울에 의한 극단적 절망감
4.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전소설 <운영전>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시론이다. 이는 소설의 현재성을 전제로 한 연구이며 특히 내면의 상처를 지닌 현대인에게 고전소설이 치유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운영전>은 운영의 자살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하며 기본 정조는 비극성이다. 운영이 자살을 한 동기는 한 가지로 귀결되지 않는다. 운영의 자살심리에는 성장 과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작용한다. 운영은 13세 때 부모를 떠나 궁중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경험은 원초적 고독과 두려움을 형성한다. 또한 성장하면서 대군자들을 압두할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세상에 쓰일 수 없는 신세를 자각하면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우울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던 차에 김 진사를 만나게 되고 그와의 사랑을 삶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는다. 김 진사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무모한 애정행각이 자기를 믿고 사랑해 준 안평대군과 궁중 사람들에게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자 운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는 그동안 지속된 심리적 압박에 모든 사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책이 더해져 극단적 절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운영전>이 담고 있는 비극 서사는 내면의 고독과 우울을 경험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치유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운영전>은 일대일 인과응보의 단순 구조를 벗어나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전>의 비극서사를 독서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또 비극적 상황에 처한 운영을 위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독자 자신에 대한 비극적 인식은 약화된다. 독서 과정은 대화의 과정과 유사하다. 자신의 심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거나 반대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이다. 독서자는 독서과정에서 자신과 동일시되는 인물과 대화함으로써 치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설은 강요된 독서가 아닌 자발적 독서의 대상이다. 따라서 과도식 주기로 오고 가는 우울한 심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대신 표현해 줌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교육적 기능에 치중한 규범서가 확보하지 못하는 소설의 역할이다.

주제어 <운영전>, 자살심리, 치유적 텍스트, 우울, 비극 서사, 내면의 상처

1. 들어가며

<운영전>은 고전 애정소설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이 운영의 자살을 중심 서사로 하며 비극성 혹은 비장미를 주된 정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운영의 죽음은 김 진사와의 비극적 사랑과 관련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는 중세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이러한 관점은 작품의 사회 역사적 맥락을 중시한 것으로 특히 운영

1)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정길수, 『<운영전>의 목소리』, 『고소설연구』 28, 고소설학회, 2009는 <운영전>을 자유와 권력의 대결 혹은 저항 관계로 보고 있다.

의 비극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고 중요한 분석기제가 되었다.²⁾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고전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고구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에 의미 있는 고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고전소설이 갖는 현재성과 연계된다. 소설은 현재적 장르이다. 그럼에도 고전이라는 수식구 때문에 작품의 현재적 의미와 역할을 쉽게 간과하게 된다. 소설의 현재성은 텍스트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과정과 관련이 있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 시점에서 그 작품의 현재적 의미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독자가 오래전에 쓰인 고전 작품을 읽는다고 해도 독서과정에서 발견하는 ‘무엇’은 오로지 독자가 속한 상황과 시대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가. 지금 한국에서는 매일 35명, 한 해 12,800여 명이 자살을 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³⁾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의 상처는 최첨단 로봇 수술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 최근에 등장한 문학치료, 독서치료는 마음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문학계의 움직임이다. 독서가 단순한 ‘마음의 양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위로자, 치유자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문학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하는 즉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⁴⁾ 입장이 전제된 작업이다. 독서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한다. 연구자로서 관건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

2)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대, 1990;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3)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5일자 기사.

4) 조셉골드,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 북키앙, 2003, 6쪽.

할을 해야하는가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일 것이다.⁵⁾

<운영전>은 매우 섬세한 작품이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그 복잡한 감정의 결들이 낫설지 않다는 점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대개 마음에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다. 인물들은 독서과정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독자는 체험적 독서를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 본고가 분석의 초점으로 삼은 운영의 ‘자살 심리’는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자살이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기에 자살에 대한 논의는 결과로서의 자살행위가 아닌 자살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그 안에서 파악되는 감정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운영전>이 향유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어떠한 감정들을 야기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살피고 그것이 상처를 안고 있는 현대인에게 치유적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운영은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

운영은 안평대군의 왕자궁인 수성궁의 궁녀이다. 그녀는 대군을 비롯

5) 문학치료적 관점의 고전연구는 정운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운체, 『문학치료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겨레어문학』 39, 겨레어문학회, 2007;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2004;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고전시가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조명』, 『한국시가연구』 10, 2001; 『<무왕설화>와 <서동요>의 주역적 해석과 문학치료의 구조화』,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2001.

하여 대군의 부인과 다른 궁인 등 궐내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용모와 자질로 사랑을 받았다. 그러한 그녀가 자살을 했다.

그 밤에 첩이 나건(羅巾)으로써 스스로 목매어 죽었나이다.⁶⁾

운영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운영이 목을 맨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연인 김 진사의 노복인 특이다. 운영을 연모하는 마음으로 초췌해진 김 진사를 위해 특은 수성궁 높은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와 소리 없이 오갈 수 있는 털버선을 만들어 준다. 월장하며 운영을 만나던 김 진사가 행여 대군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자 특은 운영과 도주하라 부추기고 자진해서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선다. 김 진사는 그 말을 믿고 운영과 도주할 계획을 세운 후 우선 운영의 궁중 재산을 나와 특에게 맡기지만, 사실 특은 김 진사를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가로챌 속셈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혀 강도를 만나 재물을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후에 김 진사가 전말을 알게 되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는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폭로하여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내 향자(向者)에 일이 있어 새벽에 이 궁장 밖을 지나더니, 어떤 사람이 궁중으로부터 서원(西園)을 넘어 나오는지라, 내 도적이라 하여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 그 사람이 그 가진 바를 버리고 가거늘, 내 가지고 돌아가 감추어 두고 입자 찾기를 기다리더니, 우리 주인이 본대 염우(廉隅) 없는지라, 나의 물건 연음을 듣고 몸소 와서 찾거늘, 내 대답하되 다른 보배는 없고 다만 금천(金鉏) 하나와 보경(寶鏡) 일 면뿐이라 한즉, 주인이 나이 젊고 글이 능한지라 조만(早晚)에 번번이 급제할지라, 탐도(貪饕)함이 여차하니

6) 이재수 본 <운영전>, 김일렬 주해, 형설출판사, 1982, 92쪽. 앞으로 인용문의 쪽수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타일 입조(入朝)하매 용심(用心)을 가히 알리로다.⁷⁾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도망을 계획한 특이 수성궁 담장 밖에 사는 맹인을 찾아가 전한 이야기이다. 누군가 수성궁 서궁에서 나오며 금채와 보경을 흘리고 간 것과 그것을 김 진사가 탐내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빠져 양평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양평대군은 남궁의 시녀 5인에게 운영을 비롯한 다섯 궁녀가 사는 서궁을 뒤지게 한다. 그 결과 운영의 의복과 보화가 없는 것을 알고 서궁의 시녀 다섯 사람에게 형장을 가하는데, 이 때 자란을 비롯한 서궁의 궁녀들은 남녀의 정욕은 인지상정이니 김 진사를 사랑한 운영은 무죄하다며 차라리 자기를 벌주라 하는 초사(招辭)를 올린다. 이에 안평대군은 운영을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는 방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지만, 결국 그날 밤 운영은 스스로 목을 맨다.

운영이 자살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 김 진사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비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두 사람이 만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또한 김 진사와 운영의 관계를 알게 된 양평대군의 문초가 운영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운영의 자결은 양평대군이 운영의 죄를 용서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양평대군은 앞서도 몇 차례 운영과 김 진사의 관계를 감지하지만 “시녀 중 만일 하나라도 궁문 밖을 나간즉 그 죄 마땅히 죽을 것이요, 바깥 사람이 궁인의 이름을 알면 그 죄 또한 죽으리라.”⁸⁾던 자신의 규율을 스스로 어기며 운영을 번번이 용서해주었다. 이 때문에 궁중 사람들은 안평대군이 운영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한다고 여긴 것이다.⁹⁾ 따라서 운영의 죽음

7) <운영전>, 87~88쪽.

8) <운영전>, 19쪽.

9) “대군이 본디 첩에게 사사(私私) 뜻이 없건마는 궁중지인(宮中之人)이 다 대군이 첩

을 단지 김진사와의 일이 대군에게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앞서 말한 특의 계략도 운영을 궁지로 몰아넣기는 했지만 거짓된 모함은 아니기에 운영의 죽음을 억울한 누명에 대한 항변으로 보기는 더욱 힘들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운영의 죽음을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 해방을 가로막는 시대의 압박을 죽음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입장은 타당하다.¹⁰⁾ 그러나 운영의 죽음 자체는 공익을 위한 희생이나 순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군의 은혜 산 같고 바다 같거늘, 능히 그 절(節)을 지키지 못하오니, 그 죄 하나요, 전일 지은 바 글에 의심됨을 주군께 뵈오나 마침내 직고(直告)하지 아니하오니 그 죄 둘이요, 서궁 무죄한 사람이 첩의 연고(緣故)로써 죄를 한 가지로 입게 하니 그 죄 셋이라.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살아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리이꼬, 만일 혹자 아니 죽이셔도 첩이 마땅히 자결(自決)하리이다. 다만 서궁지인(西宮之人)은 과연 무죄하오니 억울지탄(抑鬱之歎)이 없게 하소서.¹¹⁾

운영은 죽기 직전 초사(招辭)에서 자신의 죄를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는 안평대군의 은혜에 대한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미리 자신의 일을 바로 아뢰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서궁의 동료 궁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다. 이 세 가지로 인해 운영은 사람을 대할 면목과 살아갈 염치를 잃게 되었으며, 안평대군이 죽이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자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운영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의 항목 어디에도 김진사와의 사랑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 즉 그와의 사랑을 잘못이

에게 뜻을 둔 줄로 이는지라.” <운영전>, 24쪽.

10) 정출현, 앞의 논문 148쪽.

11) <운영전>, 91쪽.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운영이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사랑에만 국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운영은 어려서부터 부모 형제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수성궁에 들어와서도 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재덕이 당대 문사들을 압도했으며 재산 또한 넉넉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자부했었다.¹²⁾ 또한 궁중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니 당시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전문직 엘리트 여성이라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김 진사를 만날 즈음 운영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공허한 것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된 것이다.

나이 십 삼에 주군이 부르시매 부모를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하여 궁문에 들어오매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봉두구면(蓬頭垢面)과 남루의상(襤褸衣裳)으로써 보는 사람의 더럽게 여김을 삼고자 함이요, 뜰에 엮드려 우니 궁인들이 가로되 한 포기 연화꽃이 뜰 가운데 났도다 하며, 부인이 또한 사랑하심이 기출(己出)에 다름이 없사오며, 주군이 또한 심상(尋常)히 보지 않으시고, 궁중 사람들이 친애함을 골육같이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리저리하여 세월을 보내고 학문을 익히매 자못 의리(義理)를 알고 능히 음률(音律)을 살피는 고로 궁중인이 경복(敬服)지 않을 이 없더니 서궁에 옴은 후로 금서(琴書)를 전일(專一)히 하매 짓는 바 더욱 깊은지라. 무릇 빈객(賓客)의 지은 바 글이 하나도 눈에 들것이 없어 재조의 능통함이

12) 운영은 스스로 자신의 용모가 다른 9명의 궁녀보다 낮고 빈객이 지은 글이 하나도 눈에 들지 않으며, 궁중에 모아 둔 재산 또한 말 할 필요도 다 신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다. <운영전>, 60~74쪽.

13) 궁녀들은 전문직 교육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 차옥덕,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서울사람들(1)』, 서울문화사학회, 어진이, 2003, 73~92쪽.

이렇듯한지라. 시러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立身揚名)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한갓 홍안박명(紅顏薄命)의 몸이 되어 한번 심궁(深宮)을 다다르매 마침내 고목과 같이 썩음을 원한(怨恨)할 따름이라. 인생이 한 번 죽은 후면 누 다 시 알리요. 이러므로 한(恨)이 심곡(心曲)에 맺히고 원(怨)이 흉해(胸骸)에 매여 수를 놓다가도 버리고 마음을 등화(燈火)에 붙이며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던지고 틀에서 내리며 나위를 찢어 버리고 옥잠(玉簪)을 꺾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적이 시흥(詩興)이 난죽 옷을 견고 산보하여 꽃도 따며 풀도 꺾어 글을 외며 시를 읊어 여치여광(如癡如狂)하여 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더니¹⁴⁾

그녀는 열세 살에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던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궁에 들어온다. 그때 운영은 오로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머리를 산발하고 용모를 더럽게 하여 사람들에게 밉보이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름다움이 돋보여 사랑을 받는다. 친부모를 떠나 낯선 곳에 홀로 버려진 느낌은 어린 운영이 처음 겪는 무서움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대군의 부인과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대군, 그리고 가족 같은 궁궐 사람들의 애정 속에서 운영은 차차 수성 궁 생활에 적응한다. 그녀는 학문과 음률에 전일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이 점차 완성되고 재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수준에 이를 즈음 그녀는 이러한 재주로도 남자처럼 입신양명하지 못하고 궁에 갇혀 살아야하는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그녀의 첫 번째 원한은 홍안박명으로 심궁에서 고목 같이 썩어 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세상 빈객들이 눈 아래로 보일 만큼 자신의 재주에 자부심이 강하지 만 세상 밖으로 재주를 펼칠 수 없는 신세가 마음에 우울함을 만들고 그

14) <운영전>, 61~62쪽.

한은 뼈 속 깊숙이 새겨져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비단을 짜 다가도 북을 내팽개치며, 비단을 찢고 옥비녀를 부러뜨리는 등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원을 배회하며 시흥으로나 우울한 심사를 달랠던 것이다.

상년(上年) 추월지야(秋月之夜)에 한번 군자의 옥용(玉容)을 보매 문득 천상선인(天上仙人)이 진토(塵土)에 적하(謫下)한가 여기고, 첩의 용색(容色)이 또한 아흠 사람에게 지남이 있더니, 무슨 숙연(宿緣)이 있음을 어찌하여 붓 끝에 한 점 먹으로 마침내 흉중(胸中)에 원(怨)이 맺힐 줄 알았으며, 발 사이에 바라봄으로써 키 받드는 인연을 짓고, 꿈 가운데 봄으로써 장차 알지 못할 은혜를 입을 줄 알았으리요. 비록 한 번 금리(衾裏)에 즐김은 없으나 옥모수용(玉貌秀容)이 자못 안중(眼中)에 별여있어, 이화(梨花)에 두견의 울음과 오동에 밤비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고, 뜰 앞에 고운 풀의 생(生)하는 것과 하늘 거의 외로운 구름 날리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지라. 혹 병풍을 의지하여 앉으며 혹 난간을 지혀 서서 가슴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 홀로 창천(蒼天)에 사를 뿐이라. 아지 못게라. 낭군도 또한 첩을 생각함이 있나뇨? 다만 한하기를 이 몸이 군자를 보지 못하고 먼저 합연(溘然)한즉 지로 천황(地老天荒)할지라도 차한(此恨)을 민멸(泯滅)하지 못할지라. 금일 완사하는 길에 양궁(兩宮) 시녀가 다 모였으며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지라.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시고 혼이 김실에 맺히는지라. 앞드려 바라건대 낭군은 한번 굽어보시고 또 줄(拙)한 글귀를 화답(和答)하시면 이로써 미사(美事)를 삼고 길이 좋은 뜻을 바치리이다.¹⁵⁾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운영은 어느 날 이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김 진사를 만난다. 무언가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을 꿈꾸던 시기였기에 운영은 그

15) <운영전>, 62~63쪽.

와의 만남을 더욱 특별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궁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과 천상의 선인 같은 김진사가 만난 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이에 더하여 붓 끝에서 튀 먹물 한 방울에 치명적으로 빠져드는 사랑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더구나 드러내놓고 만나볼 수도 없는 상황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자극하고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 발 사이로 엿보고 벽 사이로 편지를 주고 받음만으로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전의 운영이 자신의 재주로 추구할 인생의 목표가 없어 방황하고 우울해 했다면 이제는 김 진사를 추구할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온 마음과 정신을 그것에 집중하고 것이다. 그렇기에 배꽃 핀 봄밤 두견새 울음소리나 오동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난간에 기대어 가슴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하는 행위는 앞서 비단을 찢고 비녀를 부러뜨리며 이리저리 방황할 때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우울이라면 지금은 ‘낭군도 또한 첩을 생각함이 있’는지, 혹은 그도 날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을까? ‘군자를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리움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때의 ‘죽고 싶음’은 좌절이라기보다 간절함으로 해석해야 한다.

운영이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받아 본 김 진사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무녀의 집에서 기다린다. 이것으로 김 진사도 운영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확인되자 운영은 1년 동안의 그리움을 한 데 쏟아내려는 듯¹⁶⁾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금반지를 신물로 주며 목숨을 걸고 사랑을 맹세한다. 또한 자신은 서궁에 있으니 밤을 타 찾아오라 하고, 다른 사람의 불안함과는 상관없이 궁 안에서 김 진사와 밀회를 즐기기도 하며 심지어 그와 함께 궁을 빠져나가기 위해

16) 운영이 김진사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이고, 무녀의 집에서 재회한 것은 다음 해 중추절이다.

재산을 미리 궁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¹⁷⁾ 그렇다면 나약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운영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침이 대왈 “작석(昨夕)에 일몽(一夢)을 얻으니 한 사람이 상모(相貌)가 영악(獍惡)한데 목특선우라 하고 가로되 이미 숙약(宿約)이 있는 고로 장승(長丞)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노라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몽조(夢兆)가 심히 불길한지라, 낭군은 또한 생각하라.” 진사 왈, “몽리(夢裏) 허탄지사(虛誕之事)를 어찌 가히 믿으리요.” 하거늘 침이 가로되, “그 일은 장승자(長丞者)는 궁장야(宮牆也)요, 이 이른 목특자는 이 특(特)이라. 세상사(世上事)를 불가측(不可測)이니 낭군이 특의 마음을 익히 아니나이까?” 진사 왈, “이 놈이 본대 완흉(頑凶)함이 심한지라, 그러나 내게 구는 바는 충성을 다하고 정성이 극진한지라, 오늘날 낭자로 더불어 이렇듯 인연을 맺음이 다 이 놈의 계교라. 어찌 처음에 충성을 드리고 후에 악을 비롯할 바이리요.” 하니 침이 또한 반신반의(半信半疑)하나 거절할 길이 없는지라 이에 가로되, “낭군의 말이 어찌 감히 사양(辭讓)하리요마는 다만 자란으로 더불어 정약형제(情約兄弟)라 가히 이르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니이다.”¹⁸⁾

운영과의 도주를 계획 중이던 김 진사는 어느날 안평대군의 명으로 비해당(匪懈堂)의 상량문을 짓게 된다. 글 가운데 ‘담을 넘어 풍류(風流)를 도적하리란 말’¹⁹⁾이 있어 안평대군의 의심을 사게 되자 지레 겁을 먹은 김진사는 운영에게 도주를 서두르자고 재촉한다. 이때 운영은 사태가 불길한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불길함은 김

17) <운영전>, 71~73쪽. 여기에서 운영이 애정 장애를 인식할지언정 아직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운영전>, 76~77쪽.

19) <운영전>, 75쪽.

진사가 안평대군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다. 그녀는 어렵
 뜻이나마 특에게서 고심사단(故尋事端)의 가능성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빌려 특에 대한 김 진사의 맹목적 믿음에 주의를 준다. 그러
 나 김 진사는 특의 완홍함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만은 충성을 다한
 다며 그를 두둔한다. 운영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운영이 김 진사의 말에 반대하는 것은 특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진
 사의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한 불신으로 보일 수 있으며 또한 특같이 완홍
 한 사람마저도 충성을 다한다고 믿는 김 진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김 진사의 성급함과 나약함 그리고 인생을 건
 중대사를 특 같은 무리배에게 맡기는 것 등은 운영에게 김진사와의 일을
 다시금 숙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운영은 형제의를 들어 평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조언과 조력을 아끼지 않는 자란에게 그들의 계
 획을 알리자고 한 것이다. 이것은 김 진사와의 도주를 통보하겠다는 뜻보
 다 자란의 입을 통해 다시금 김 진사에게 숙고하도록 조언하고 싶기 때문
 일 것이다. 이것은 자란의 말을 들은 후 송연(悚然)한 태도를 보이며 말
 없이 고개 숙이는 운영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즉시 자란을 불러 이르매 첩이 진사의 계교로써 고(告)한대 자란이 듣고
 크게 놀라 꾸짖어 왈,

“서로 즐겁이 날이 오래매 빨리 화(禍)를 부르고자 하느냐. 수삼 삭(數三
 朔) 즐겁이 또한 가히 족(足)하거늘, 사람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 재앙(災
 殃)이 내리나니, 하물며 담을 넘어 도망함이 어찌 사람의 차마 할 바리요.
 또 차마 버리지 못할 바가 네 가지라. 주군이 뜻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랜지
 라 그 가히 버리지 못할 것이 하나요, 부인의 사랑하심이 지금 간절하시니
 그 가히 버리지 못할 것이 둘이요, 화가 양친께 미치리니 그 가히 버리지

못할 것이 셋이요, 죄가 서궁에 미치리니 그 가히 버리지 못할 것이 넷이라. 이 가히 가지 못할 것이요. 또 천지 사이가 한 그물 속이라, 승천입지(昇天入地)하기 전은 도망하여 어데로 가리요. 만일 잡히게 되면 그 화가 어찌 남자의 일신에만 미치리요. 남자는 익히 생각하여 보라. 몽조가 불길함은 이르지도 말고 설혹 길조(吉兆)라 하여도 남자가 즐겨 갈 터이나. 그런 생각과 저런 염려를 다시 말고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제하여 분의(分義)를 지키고 고요히 있어 천명(天命)을 들을 따름이라. 남자가 나이 차고 용모가 쇠사(衰謝)한즉 주군의 은권(恩眷)이 적어 풀릴 것이니 그 사세(事勢)를 보아 가며 칭병(稱病)하고 오래 누웠으면 주군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 보낼 것이니, 당차지시(當此之時)하여 쾌히 낭군으로 더불어 손을 이끌고 한 가지로 돌아가 마음대로 해로(偕老) 하리니 다행함이 이만큼이 없거늘 이런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망녕(妄靈)되어 감히 쾌악(悖惡)한 계교를 내어 되지 못할 일을 하려 하니, 네 눈을 속이며 또한 하늘을 속일소냐. 깊이 헤아리고 다시 생각하여 청춘이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일이 되어 감을 보라.”

하거늘, 첩이 그 말을 들으며 송연(悚然)하여 고개를 숙이고 답할 말이 없는지라,²⁰⁾

운영은 자란을 불러 ‘진사의 계교’를 알려준다.²¹⁾ 이에 자란은 주군과 부인, 부모와 동료들에 대한 도의(道義)를 들어 그 일이 부당함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절로 나이가 들고 그때 병을 핑계 삼으면 대군도 기꺼이 운영을 고향으로 보내 줄 테니 그때 가서 김진사와 해로하면 된다는 제안을 한다. 이는 천명과 도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쾌악한 계교를 내어

20) <운영전>, 77~78쪽.

21) 운영이 ‘진사와 자신의 계교’라거나 ‘자신의 계교’라 하지 않고 ‘진사의 계교’라고 한 것에 주목하자.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조급함을 탓한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사리에 타당한 자란의 말은 하나에 매몰돼 다른 일을 살피지 못했던 운영에게 송연한 마음을 들게 한다.

낭군이 소년 표치(標致)로 문장조화(文章造化)가 세상에 독보(獨步)하는지라, 사리(事理)에 통달(通達)하고 매사에 쾌활하실지라, 어찌 그 하나만 알고 그 둘은 알지 못하며 그 앞만 보고 그 뒤는 살피지 못하시니이까? 남녀의 정욕(情欲)이야 고금(古今)이 다르며 귀천(貴賤)이 있으리까? 운영의 사람됨이 낱자 혜질(惠質)이 규합(閨閣)에 뛰어나고 빙정요라(娉婷窈窕)함이 속태(俗態)를 머물지 않았으며, 서시가 재생(再生)하고 비연이 다시 돌아옴이라. 총명재예(聰明才藝)와 문장학행(文章學行)이 또한 대군자(大君子)를 압두(壓頭)할 것이어늘, 이같은 풍신(風身)으로 궁벽(窮僻)한 심궁에 잠겨 화조월석(花朝月夕)과 도요방년(桃夭芳年)을 덧없이 보내고 외로이 냉궁(冷宮)에 길들여 고등(孤燈) 잔월(殘月)과 추월 춘풍을 헛되이 지내니, 단장소혼(斷腸消魂)이 몇 번이리오마는, 주군이 사랑하시고 부인이 애홀(愛恤)하시며, 자매 십 인이 서로 위로하여 지내더니,

자란이 운영에 이어 곁에 있던 김 진사에게 하는 말이다. 자란은 진사처럼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며 앞만 보고 뒤를 살피지 않는’ 경솔함을 보이냐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고는 운영의 처지에 대해 말한다. 운영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자질을 지녔으며, 학식 또한 대군자를 압두할 만하다. 이런 재주로 심궁에 갇혀 인생의 한창 때를 외롭고 헛되이 보내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몇 번이나 ‘단장소혼’할 신세인 것이다. 그나마 주군과 부인이 사랑으로 돌보고 같은 처지의 궁녀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저럭 견뎌내고 있었다. 운영은 앞서 김 진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뛰어난 재주가 세상에 나서

지 못하고 심궁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해하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었다. 이것은 단지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부하듯 ‘대군자를 압두하고’ 빈객의 글을 내리보는 학식을 지니고도 심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울함이 깔려 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김 진사를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청소가기(請巢佳期)가 지중(至重)하므로 낭군을 한번 만나매 문득 초월(楚越)의 사괘 같고 목란(木蘭)의 종군(從軍) 같은지라. 구차이 벽을 뚫고 발을 드리워 낭군의 뜻을 머무나, 다만 어안(魚雁)이 절핍(絶乏)하고 표신(標信)이 무료(無聊)하여 거문고 줄을 이을 길이 없는지라. 첩이 저로 더불어 정(情)은 형제같고 의(誼)는 교칠(膠漆) 같아 사생고락(死生苦樂)을 같이 하려 맹세한지라. 저의 정세(情勢)를 긍측(矜惻)이 여기고 애용(愛容)을 사랑하여 밥 먹기를 잊고 잠자기를 폐(廢)하여 다행히 진진(秦晉)의 좋음을 믿고 그윽히 월옹(月翁)의 줄을 이은지라, 비록 왕래하기 괴롭고 상봉(相逢)하기 어려우나 기간(其間) 삼사 삭(三四朔)에 비린지회(鄙吝之懷)를 배운지라 단회지기(團會之期)야 그리 바쁘리이까. 자연 일구월심(日久月深)하여 수삼 년만 기다리면 좋은 모책(謀策)을 얻을 것이니, 당기시(當其時) 하여는 첩도 또한 힘쓸지라 지자우귀(之子于歸)에 이여동귀(異旅同歸)하리니, 대장부의 일이 물탄물벌(勿歎勿罰)할 것이요, 여자로 하여금 반점(半點) 구차함이 없게 하리니, 이제 낭군은 어찌하여 생각이 암매(暗昧)하고 헤아림이 바히 없어 무지한 노(奴)의 사나운 피와 어지러운 말을 곧이 듣고 대사(大事)를 소홀히 하리요. 월장찬벽(越牆鑽壁)에 절부이도(竊負而逃)는 무거괘자(無據悖子)의 할 일이라 어찌 군자의 행할 바이리요. 낭군은 그윽히 생각하여 보소서. 주군의 대접하심이 어떠하시며 낭군의 재명(才名)이 또한 어떠하시니이꼬. 이만 일을 부합(符合)지 못하게 하사 대군의 외오여 기심을 받고 아녀자(兒女子)로 하여금 그른 곳에 빠지게 하며 악한 추명(醜名)이 꾸짖음을 면하지 못하리니, 여차(如此)즉(卽) 비록 아무 염려 없이 편

히 산다 한즉 하(何) 면목으로 세인(世人)을 대하리요. 하물며 대군의 높은 성이 발(發)하는 바에 어데 가 안신(安身)하며 무엇으로 더불어 즐기리이꼬, 원(元)건대 낭군은 모로미 첩의 말을 우직(愚直)다 마시고 채랍(採納)하기를 바라나이다. 첩이 비록 용렬(庸劣)하나 어찌 낭군과 다못 운영의 일을 힘쓰지 않으리이꼬.²²⁾

자란의 말은 이어진다. 운영은 궁녀라는 특수 신분으로 인해 김 진사와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지만 그 때문에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고 그러한 간절함이 김 진사로 하여금 궁을 넘어오도록 했으며, 몇 달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일은 운영과 김 진사 두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궁녀들에게도 조마조마한 일이다. 그럼에도 김 진사는 자신의 불안이나 입장만 생각하여 수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단회 지기’를 당기려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모든 조건을 충분하고 현명하게 고려한 결정이 아니고 ‘생각 없이 무지한 노복의 사나운 피와 어지러운 말’에 휘둘린 것이니 어떻게 대사를 소홀히 다룰 수 있냐는 질책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둘째 치고 김 진사에게 배운 대군의 각별함을 저버리는 것이고 진사의 명예도 손상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으로 하여금 그릇된 곳에 빠지게 하여 ‘추명’을 얻게 하는 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처지로 전락시키는 계획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느 것 하나 부당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 김 진사는 참회의 눈물을 머금고 “복이 우몽(愚蒙)하여 사세(事勢)를 깨닫지 못함이 많은지라, 바라건대 낭자도 복의 황독(違篤)함을 개념(改念)하지 말라.²³⁾”며 운영의 방을 나선다. 자란의 조언으로 인

22) <운영전>, 79~81쪽.

23) <운영전>, 81쪽.

해 두 사람의 도주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그렇다고 서로의 만남까지 그만 둔 것은 아니다. 자란이 말했듯 남녀간 정은 고금 귀천에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안평대군이 철쭉을 보고 짓게 한 운영의 절구시에 사람을 생각하는 뜻이 또 다시 드러나 대군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때 대군은 앞서와 달리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뜻’에서 멈추지 않고 ‘김생을 생각하는 뜻’이냐고 추궁한다. 이에 운영은 “주군이 한번 의심을 보심에 그 때 즉시 자진(自盡)코자 하오나 연(年) 미이순(未二旬)에 또한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마음이 심히 원통할지라, 이러므로 투생(鬪生)하와 이때까지 왔삽더니 이제 또 의심을 뵈온지라 한 번 죽음이 무엇이 아까우리까. 천지귀신이 삼별 듯 벌어있고 시녀 오인이 경각(頃刻)을 떠나지 아니는지라. 음예(淫穢)한 이름을 홀로 첩신(妾身)에게 돌려 보내시니 첩이 이제 죽을 곳을 얻었나이다.”²⁴⁾라며 스스로 난간에 목을 맨다. 그러나 대군은 진짜로 죽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²⁵⁾ 자란에게 그녀를 구하게 하고 오히려 운영을 포함한 다섯 궁녀 모두에게 시를 잘 지었다며 포상한다.

안평대군은 이전에도 운영과 김 진사와의 일을 용서했었다. 안평대군이 운영을 죽이거나 운영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궁녀들뿐 아니라 운영 자신도 잘 안다. 그럼에도 운영은 안평대군 앞에서 김 진사와의 일을 부정하고 목을 매는 행위로 그 결백을 호소하려 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거나 김 진사를 구하기 위해 서라기보다 안평대군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은 아닐까. 자란의 말을 통해 운영은 자신의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사랑으로

24) <운영전>, 82쪽.

25) <운영전>, 82~83쪽.

보살펴준 대군과 궁중사람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애정에 매몰되어 도의를 저버리려 했던 잘못을 깨달은 운영은 대군과 주변 사람들을 배신하거나, 그들이 자기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였을까. 운영은 이 일이 있는 후 찾아 온 김 진사에게 결별을 통보한다.

모년(某年) 월(月) 일(日)에 박명(薄命) 첩 운영은 재배하고 김생 휘하(麾下)에 원(願)을 사되나이다. 첩이 비박지재(菲薄之才)로서 불행이 낭군의 유의(留意)함이 되어 서로 생각함이 몇 날이며, 서로 바람이 몇 때런고. 다행히 하루 밤 즐거움 이루매 바다같이 깊은 정과 태산같이 중한 뜻을 다하지 못하여 인간 호사(好事)를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매 궁인이 다 알고 주군이 의심하매 화(禍)가 조석에 급함이 있어 죽은 후 말리니, 첩이 청춘지년(青春之年)에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함원요사(含怨夭死)함을 생각하니 차한(此恨)이 면면부절(綿綿不絕)이라. 비사고어(悲思苦語)를 사를 곳이 없고 천수만한(千愁萬恨)을 고(告)할 데 없는지라.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은 이렇듯 이별한 후로 천첩(賤妾)을 회포간(懷抱間)에 두어서 심회를 상하지 마소서. 함내(閨內)에 현숙(賢淑)한 부인이 계시고 겸하여 남자라, 어찌 첩의 애원(哀怨)한 회포에 비기리이꼬. 모로미 심사(心思)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하여 학업을 힘써 하여 높이 갑제(甲第)에 뽑히고 청운(靑雲)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현양(顯揚)하소서. 첩의 의복 보화(寶貨)를 모두 화매(和賣)하여 부처께 공양(供養)하시고 백반기축(百般祈祝)하여 지성발원(至誠發願)하사, 삼생(三生)에 미진(未盡)한 연분(緣分)으로 하여금 다시 후생(後生)에 잇게 하소서. 붓을 들고 종이를 임하매 흥격이 억색(臆塞)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워 고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²⁶⁾

언표상으로는 사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운영이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고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조물이 시기하여 궁인과 대군이 알게 된 것

26) <운영전>, 84쪽.

이 진정 ‘화’로써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던 말인가. 사실 수성궁 내 궁인들은 모두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군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자신이 운영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운영 스스로 김진사와의 사랑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을 각오를 한 것인가. 그녀는 오히려 부모를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안평대군에게 20도 안 되는 나이에 부모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없어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녀는 부모를 저버리면서 자살을 결심할 만큼 사리분별이 없지 않다.²⁷⁾ 또한 편지의 어디에서도 자신이 죽음을 결심했다는 단서는 없으며 단지 헤어질 것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김 진사는 아내도 있고 남자이니 자신만큼 슬프고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는 다소 김 진사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은 부처께 공양하는 데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 진사는 특에게 맡긴 운영의 재산을 거두려 하지만 특은 강도를 당했다 속이고 그 재물을 가로챈다. 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도망을 결심한 특은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성 밖 맹인에게 말함으로써 이들의 일이 결국은 수성궁 밖으로 퍼지게 된 것은 앞에서 살폈다. 수성궁 내에서 두 사람의 밀회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구절로 인해 김 진사와의 일을 의심했다가 용서하기를 2번이나 하였지만, 드러나지 않은 용서와 묵인도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겨우내 눈 위에 어지럽게 난 김 진사의 발자국을 궁중 사람들이 다 알고 조마조마 했는데 안평대군만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안평은 그것을 묵과했다. 수성궁 내에서는 자신이 침묵하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 수 없기 때문이

27) 이것도 자란의 조언을 들은 후의 일이라는 점에서 주변에 대한 도의를 자각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문제가 밖으로 퍼졌고, 심지어 서궁의 재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성 밖에서 먼저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안평대군은 어쩔 수없이 남궁의 궁녀들로 하여금 서궁을 뒤지게 한다. 운영이 밖으로 도주하려 했던 사실은 안평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었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로 형장을 갖추었지만 궁녀들이 욕망을 가로막는 궁중생활의 비정함을 들어 운영의 정욕을 옹호하고 그 죄를 함께 받겠다고 나서자 차츰 마음을 풀고 운영을 용서한다.

김 진사와의 이별 앞에서도 죽음을 말하지 않았던 운영은 이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한다. 그녀가 걱정하던 일, 즉 자신으로 인해 대군이 상처받고 궁인들이 억울한 형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옹호하며 오히려 그들의 죄라 자처하고 안평대군도 자신에게 벌을 가하지 않고 별당에 가두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지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운영에게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상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운영은 마지막 유언처럼 “주군의 은혜 산 같고 바다 같거늘, 능히 그 절(節)을 지키지 못하오니, 그 죄 하나요, 전일 지은 바 글에 의심됨을 주군께 뵈오나 마침내 직고(直告)하지 아니하오니 그 죄 둘이요, 서궁 무죄한 사람이 첩의 연고(緣故)로써 죄를 한 가지로 입게 하니 그 죄 셋이라.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살아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리이꼬, 만일 혹자 아니 죽이셔도 첩이 마땅히 자결(自決)하리이다.”²⁸⁾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이제 운영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죽음으로 호소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좌절이 죽음을 결심하게 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곧 죽을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죄도 아니지만 죽음의 진짜 원인도 아니다.²⁹⁾ 그녀는 자신이 추구하던 인간관계, 인간으

28) <운영전>, 91쪽.

로서의 도의 등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3. 운영의 자살 심리 분석 : 상실-고독-슬픔-우울에 의한 극단적 절망감

운영의 일생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운영은 13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충충시하의 낯설고 무서운 수성궁에 들어온다.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학업을 닦으며 외로움을 극복한다.³⁰⁾ 학문이 일정정도 수준에 오르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심궁에 갇혀 살아야하는 신세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재주가 있어도 삶의 목표를 지닐 수 없다는 상실감은 그녀를 배회하게 했고 그러던 차에 만난 김 진사는 그녀가 집중할 목표가 되어주었다. 더구나 자유롭지 않는 신분으로 인해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은 김 진사에 대한 사랑을 간절한 운명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1년 여 동안 홀로 애태우던 운영은 결국 무녀의 집에서 김 진사를 만나 마음을 확인하고 육체적 관계를 시작한다. 궁중사람들의 묵인과 도움 아래 김 진사는 궁을 오가며 운영을 만나다가, 상량문 사건으로 지레 겁을 먹고 간특한 노비 특의 말에 따라 운영에게 도망할 것을 제안한다. 운영은 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지만 김 진사는 그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러나 결국 자란의 이성적 판단과 충고에 의해 도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자란은 운영의 행동이 주위사람들에게 도의적인 배신이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

29) 물론 죽음을 결심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0) 이 외로움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다. 궁녀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외로움에 대한 흔적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고 운영은 김 진사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는데, 김 진사가 특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 사단이 되어 이미 백지화된 도주 계획이 들통 나고 그로 인해 운영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안평대군과 궁중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끼치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을 옹호하고 용서하자 운영은 더욱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한 것이다.

이로 보면 운영의 자살은 단지 벽에 부딪힌 사랑 때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훼손된 자존감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자존감의 훼손만을 자살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 자살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의 결과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운영은 어려서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혹은 부모를 빼앗긴 상실의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원초적 외로움을 형성했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층층시하의 궁궐 생활은³¹⁾ 운영을 매사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해야하는 성격으로 변하게 했을 것이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가르침에 힘입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만, 학문의 진보는 그녀의 자부심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신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녀가 지닌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불만은 울화를 만들고 그것은 비단을 찢거나 비녀를 부러뜨리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돌출되기도 한다.³²⁾

부모를 상실한 것에 기인한 고독과 새로운 궁중생활로 인한 두려움, 그

31) 신명호, 『궁녀』, 145~154쪽.

32) 한문 교감본에는 ‘농던 지수를 등불에 태우고 짜던 베를 북을 집어 던지며, 비단 휘장을 찢고 옥비녀를 부러뜨리며, 술 마시고 맨발로 산보를 하고 섬돌 꽃과 뜰의 풀을 꺾기도 했다(停刺繡而付之燈火, 罷織錦而投杼下機, 裂破羅幃, 折其玉簪, 暫得酒興, 則脫烏散步, 剝落階花, 手折庭草)’고 하였다.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소명, 2007, 363쪽.

리고 지적인 성숙과 더불어 야기된 삶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단지 변화가 있다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결별로 인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17세 꽃다운 나이가 되면서 이성을 그리는 마음으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이다. 김 진사는 다소 과격한 성향마저 보이며 돌파구를 찾아 배회하던 운영에게 지금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은 희망적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특히 다른 빈객들의 글은 눈에 들지도 않았던 운영에게 김 진사의 뛰어난 문장은 김 진사를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였다. 한번 감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자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미가 되었고 결국 운영은 먹물 한 방울에 운명을 걸게 된 것이다.

김 진사와의 금지된 사랑은 금지된 만큼의 간절함을 불러온다. 운영이 김 진사와 재회하기 전 1년 동안의 생활은 애태움이지 좌절은 아니다. 그때의 ‘죽고 싶음’은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것은 김 진사와의 재회 후 불처럼 번져가는 육체적 사랑으로 확인된다. 운영은 김 진사를 다시 만나 편지를 건네주는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움의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김 진사도 자신을 그리워했는가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고백의 연서이다. 김 진사도 자신을 그리워했음을 확인하자 운영은 그 자리에서 김 진사에게 서궁의 담을 넘어 자신을 찾아오라는 과감한 제안을 한다. 이것은 일종의 도발로 간절함이 무모함과 손잡는 순간이다. 이때 운영은 김 진사와의 만남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운영이 한껏 감정적으로 치달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모함은 결국 위기를 맞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 진사는 특이라는 무리배에게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운영이 특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표해도 김 진사는 운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특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이것은 김 진사의 우월한 허세를 드러내

는데, 운영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 자란의 입을 통해 특이 제안하고 김 진사가 실행하려고 한 계획이 무모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이때 자란의 말은 운영 자신에게도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각하고 자신이 지켜야할 도의를 깨닫게 하였다. 결국 운영은 사랑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다소 무모했던 애정행각은 부끄러운 것임을 송연히 깨닫게 된다. 사실 운영은 자신의 인생이 더 넓고 큰 곳으로 나가지 못함을 한탄하던 중 김 진사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자란의 충고에서 보듯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김 진사의 나약함과 무모함은 오히려 자신을 더럽고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던 것이었다. 운영이 자란의 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그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은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삶에 대한 불만 중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마저 더하게 된다. 이는 자존감이 높았던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김 진사에 대한 실망과 원망도 짝트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별을 통보하는 편지에서 “합내(閤內)에 현숙(賢淑)한 부인이 계시고 겸하여 남자라, 어찌 첩의 애원(哀怨)한 회포에 비기리이꼬. 모로미 심사(心思)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하여 학업을 힘써 하여 높이 갑제(甲第)에 뽑히고 청운(靑雲)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현양(顯揚)하소서.”³³⁾라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다. 김 진사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신만 큼은 아니라는 말 속에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이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여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한쪽이 한쪽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이별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원통함이 김 진사 하나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김 진사는 예전처럼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심지어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할 수 있지

33) <운영전>, 84~85쪽.

않느냐는 말은 김 진사 개인에 대한 원망이자 그가 남자이므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우위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서 “서궁에 읊은 후로 금서(琴書)를 전일(專一)히 하매 짓는 바 더욱 깊은지라. 무릇 빈객(賓客)의 지은 바 글이 하나도 눈에 들것이 없어 재조의 능통함이 이렇듯 한지라. 시러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立身揚名) 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한갓 홍안박명(紅顏薄命)의 몸이 되어 한번 심궁(深宮)을 다다르매 마침내 고목과 같이 썩음을 원한(怨恨)할 따름이라.”³⁴⁾던 운영의 한탄과 겹쳐지는 부분이다.

운영이 김 진사와 결별한 이후, 뜻밖에 도주하려 했던 사실이 발각된다. 이미 백지화된 사건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운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안평대군을 대할 면목이 없게 하였다. 안평대군이 또 한 번 용서를 해준다 하여도 운영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 때문에 형장에 처한 궁녀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옹호하고 죄를 자처하는 것에 운영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이기심을 무한히 용납해 준 그들을 볼 면목이 없고 그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즉 자신만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이다.

운영의 죽음은 의사표현의 통로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말하기로서의 죽음, 저항으로서의 죽음³⁵⁾이라기보다 극단적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 내면으로 침착하는 죽음에 더 가깝다. 자아를 축소하고 자신의 종적을 감추는 기제로서의 슬픔은 실연이나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했을 때 드러난다.³⁶⁾

34) <운영전>, 62쪽.

35)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2003, 202쪽.

36) 시모조노 소우타, 이수진 역, 『사람은 왜 죽고 싶어하는가』, 홍익출판사, 2004, 34쪽. 자살심리와 관련하여서는 이 책의 관점에 도움을 받았다.

일단 슬픔에 빠지면 ‘나는 고독하다’거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과도해진 슬픔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 운영의 경우 어려서 형성된 원초적 고독과 성장하면서 느끼게 된 삶의 목표 상실, 거기에 애정의 실패 등이 겹쳐져 슬픔과 우울에 빠지게 된다. 거기에 자신을 무익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슬픔과 우울은 극단적 절망으로 치달게 된다.

마지막 조사에서 나타나는 운영의 심리는 일종의 자기 소외 경향이라 볼 수 있다. 자기 소외 경향이란 우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가 경직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격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 공격 목표가 자신을 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모든 상황이 자기로 인한 것이며 이 고통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직된 사고는 오랫동안 축적된 정신적 피로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빨리 원인을 결정지으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상황을 자기의 무능력으로 돌리게 하며 쉽게 절망으로 이어진다. 대개 ‘모두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사라져 버리고 싶습니다.’라는 식의 유서를 남기는 자살자가 그러하다. 자기 소외와 피로가 지속되고 자신감 상실이 극단에 다다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인식기제가 작동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른 순간 그 포기의 대상은 ‘삶’이 되어버린다.³⁷⁾

<운영전>은 자살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기제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자살은 ‘정신병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위축과 억눌린 공격성 그리고 현실도피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징후가 얽히고설키며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³⁸⁾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분명한 원인

37) 시모조노 조우타, 앞의 책, 60~78쪽.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자살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큰 슬픔과 고통을 줄 뿐이다. 이는 운영의 죽음으로 파급되는 궁중 내 비통함과 김진사의 자살에서도 알 수 있다

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미도 없다. 운영의 자살은 상실-고독-슬픔-우울이 극단적 절망감으로 이르면서 발생한 것이다. 운영의 상실과 고독은 인간관계의 강제적 소거 즉 어려서 부모형제와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운영의 내면에 원초적 고독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운영은 학문에 힘쓰는 것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다시 궁녀라는 신분이 학문적 능력의 발산을 가로막는 장애임을 인식하게 되어 미래 삶에 대한 총체적 희망을 상실하였으며, 그것을 대체하려던 김 진사와의 연애마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슬픔은 우울적 성향으로 발전한다.

우울증은 운영으로 하여금 침식을 전폐하고 외출도 삼가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게 한다. 우울증은 자살성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정신 작용이다. 자살성향은 독립적 정신장애가 아니라 우울성 장애의 한 증상으로 간주된다. 운영의 우울증은 스스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데, 이는 도주 계획이 발각되었을 때 최고조에 이른다. 안평대군과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존재라는 자책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극단적 절망은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 우울적 성향에는 공격성이 내재하는데, 우울이 극단적 절망으로 치달는 순간 그 공격성은 자기자아를 향하게 된다. 이렇게 우울성향이 자살성향으로 전위되면 죄책감, 자기비하를 거쳐 마침내 자기살해인 자살로 표현되는 것이다.³⁸⁾ <운영전>은 자살과 관련한 모든 심리적 기제들을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적 위기’와⁴⁰⁾ 연결시킴으로써 한 가지로 꼭 집어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자살심리를 단계와 상황별로 잘 드러내고 있다.

38)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역, 『자살』, 이끌리오, 50쪽.

39) 토마스 브로니쉬, 앞의 책, 55쪽.

40)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지사, 2006, 22쪽.

4.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도서관을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고 불렀다 한다. 이로 본다면 책을 통한 마음 치유는 상당한 역사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덕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밀려와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만 하여 그저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때’ 책을 읽으면 억눌렀던 마음이 진정된다고 하였다.⁴¹⁾ 그렇다면 모든 책이 우리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치유서로의 책은 별도로 존재하는가. 마음의 상처는 보편적 사회 경험뿐만 아니라 개별자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동일한 경험이라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서로 기능하는 책 또한 개별자마다 다를 것이고 그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다양할 것이다. 즉 개별 독서자가 독서행위를 통해 감동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치유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연한 위안과 치유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치유라는 개념은 치유 받아야 할 대상 즉 상처[아픔]와 관련이 있다. 아픔을 유발한 원인을 찾아야 치유가 가능하다. 단순한 ‘위로’는 친구에게서도 받을 수 있지만 ‘치유나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픔에는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에 직접 다가갈 수 있어야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위로에서 더 나아가 내면의 상처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치유서로서 더욱 적합할 것이다. 김정근은 상처를 직시하고 불능을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되짚어가며 그 연결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41) 이덕무, 권정원 역, 『책에 미친 바보』, 미다스북스, 2004, 47쪽.

과정은 독자의 마음속에 동일화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통찰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고, 상처의 진원지를 확인하게 하는데, 이처럼 독자들이 무의식 속에 잠자던 지난 경험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치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⁴²⁾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치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운영전>이 치유텍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운영전>은 자살을 유발하는 다양한 심리와 정서(느낌)을 환기시키며, 사건과 연관된 감정의 근원을 성장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나가고 있다. 둘째 액자구성 내부의 1인칭 서술은 상담치료에서 사용하는 대화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독자(내담자)⁴³⁾는 인물이 직접 전하는 스토리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셋째 운영의 생애진술과 독자(유영)의 그것을 조우하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내도록 하며, 독서활동에 의해 유입된 정보가 독자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운영전>은 운영의 자살을 중심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보여 준다. 운영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과 일대일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운영이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면서 겪어 온 부모와의 이별, 외롭고 답답한 궁녀 생활, 삶의 한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실연 등에 기인한다. 각각의 인생 마디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피로는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면서 끝내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든다.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존재로 인식

42) 김정근 외, 『체험적 독서치료』, 학지사, 2007, 27~29쪽. 독서치유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책을 참고하였다.

43) 인본주의 심리학은 정신분석의 비인간성을 지적하며 치료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사용하던 ‘환자’라는 용어를 ‘내담자’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영식, 앞의 책, 30쪽.

하는 순간 내면에 영커진 심리적 기제가 동시에 발동하며 삶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운영의 내면세계에 대한 진술은 운영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더욱 진실 되게 와 닿는다.⁴⁴⁾ 독자는 운영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나긴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절망에 빠진 이유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드는 노력은 막연한 상태가 주는 불안보다 고통이 덜하다.

실제로 자살자는 대개 왜 살기 싫은지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자살을 한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 피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우울, 불안, 슬픔, 공포, 분노 등 피로를 유발하는 감정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피로감이 극에 달한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절망으로 치달으며 자살을 하게 된다. 자살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고통을 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벗어나고 싶냐고 묻는다면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고 싶다는 것은 일종의 느낌인데, 이 ‘느낌’이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치유가 되려면 독서자가 자신의 느낌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운영전>은 자살을 생각하는 독서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독서자가 작가가 표현한 언어를 통해 자신이 지금 왜 죽고 싶은지 확인하거나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극적 사연 읽기는 자신보다 더 큰 슬픔에 처한 사람과 대면하

44) <운영전>은 1인칭 주인공시점을 취함으로써 서술자 운영의 심리를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다. 김정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문학연구』 4, 한국고전문학학회, 2002, 43~60쪽.

게 함으로써 독서자를 심리적 우월자로 만들어 준다. 화면이나 지면상으로만 만나는 사회지도층이나 유명 연예인의 죽음은 일가친척의 죽음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대개 놀랍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가 먼저이다. '사회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나에게 그 사람과 같은 지위와 부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텐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게 된다. 평소 늘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위치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독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희석시킨다. 운영은 이름답고 능력도 있으며 물질적으로나 권세 면에서 부러울 것 없는 여성이며, 김 진사 또한 당대 최고의 선비였다. 독서자는 그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운영전>은 그 자체가 '독서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액자구성 혹은 몽유적 구성의 내부는 기실 운영이 운영이야기를 독서하는 과정인 셈이다. 개인적인 자질은 뛰어나나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마음에 울적함을 지닌 선비 운영이 바로 운영이야기의 일차적인 독자인 것이다. 그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불우(비회)와 유사한 상황에 공감한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액자 내부는 사건의 중심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효과를 주어 독서치료에서 중시하는 인물과 독자의 '동일시'⁴⁵⁾ 더욱 촉진된다. 그 과정에서 운영은 자신의 처지보다 더 비극적인 운영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비회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동일시를 통한 공감은 독자의 심리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45) 조셉 골드, 앞의 책, 350쪽.

“영이 창연(愴然) 무료(無聊)하여 책을 거두어 소매에 넣고 집에 돌아와 협사(篋笥)에 감추어 두고 때로 혹자(或者) 열어보면 망연자실(茫然自失)한지라. 일로부터 침식(寢食)을 구폐(俱廢)하고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두루 놀아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하더라.”⁴⁶⁾는 운영의 행동은 ‘소외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우감이 극한적 지경으로 치달아 삶을 포기하는 것’ 혹은 ‘자신이 회구했던 문인 학자를 우대한 수성공의 질서가 기실 인간의 진정한 삶을 훼손시키는 횡포임을 알고 삶의 정향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할⁴⁷⁾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영이 보이는 행동변화, 즉 술병을 들고 홀로 과거 문인들이 성시를 이루던 수성궁을 배회하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는 수성궁을 찾지 않게 된 것이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운영이야기가 운영에게 어떠한 자각과 통찰을 가능하게 했음을 암시한다. 운영은 막연히 옛 성시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불우를 시대의 탓으로 돌리고 우울해하기만 했다. 이것은 자신의 불행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보호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 하여 바라보기 어렵다. 그때 외부자극으로 주어지는 정보 즉 독서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며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운영의 이야기는 운영의 불우한 삶과 조우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목표와 그리움의 대상을 상실하였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 그 상실을 인정하고 엄연한 사실(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운영이 ‘침식을 구폐하고 명산대천을 두루 노는 것’은 완전한 치유의 전단계인 자기 애도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심리적 치유가 가능하기 때

46) <운영전>, 101쪽.

47) 정출현, 앞의 책, 124~133쪽.

문이다. 결말을 유영의 ‘부지소중’으로 처리하여 완전한 치유 여부를 작품에 드러내지 않은 것도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작품의 독자 몫으로 남겨두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전>은 비극적 작품이다. 인물의 비극을 공유하는 것은 독서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삶의 비극을 돌아보고 그것을 꺼내어 말함으로써 온전히 그 슬픔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상황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운영전>은 17세기에 창작되어 한문본과 한글본의 여러 이본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1921년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가 진행한 『조선통속문고』 시리즈 간행목록에도 포함되었고⁴⁸⁾ 1925년 영창서관에서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⁴⁹⁾ 이것은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도 독서대중에게 끊임없이 애독되었던 작품임을 말해준다. <운영전>이 확보한 대중성이 단지 감각적 자극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기반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치유서로서의 <운영전>에 대한 논의는 고소설의 대중성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중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문화상품들을 재해석한다는 점에서⁵⁰⁾ 개별 독자에게 치유서로서 기능하는 소설의 대중성은 일층 고양된 개념일 터이다.

48) 이것은 조선상고 이래 정사와 야사, 소설, 시가 등을 선별하여 다달이 시리즈 형식으로 간행한 것으로 여기에 선정된 작품들은 당시 독자들이 특별히 선호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서의 수용 변화』, 『판소리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273~274쪽.

49)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03쪽.

50)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아카데미, 1995.

5. 나오며

마음의 슬픔과 고독이 어우러져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존재한다. 자신의 나약하거나 비이성적인 심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것이다. 절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기에 더 큰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상대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크다. 자신이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상대가 ‘힘들군요’라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이해받고 있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안 될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야기책을 읽으면 인간의 칠정을 두루 갖춘 인물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⁵¹⁾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⁵²⁾ 자신과 같은 상태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라고 동정하고 이해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독자는 자신의 문제가 스스로의 무능력에 기인한다는 생

51) “가정에 계신 귀부인 숙녀께서 간단없이 계속하여 보시면 분할 때 원통할 때 장쾌할 때 섭섭할 때 재미있을 때 온갖 우리 사람의 가진 七情이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솟아 나와 먹는 것 잠자는 것 더운 것 추운 것 다 잊어버리고 이 소설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쾌락을 어디서 구하리요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터이옵시다” 『매일신보』, 1914. 6. 9.

52)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도서출판 동연, 1995, 230-258쪽.

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다 인물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독자가 책(인물)과 대화하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고객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⁵³⁾ 독자는 인물의 눈에 비친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 성격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독서는 밥 먹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필요가 갖든 행위이다.⁵⁴⁾ 이것은 밥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임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내고 갈구하듯 독서 또한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선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람마다 지어내고 집집마다 읽어 대며,⁵⁵⁾ 부녀자들이 음식장만하기와 베짜는 책임을 팽개치고 비녀와 팔찌를 팔거나 빗을 내면서까지 책을 빌려보는⁵⁶⁾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소설은 자발적 독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적 독서는 파도식으로 밀려드는 우울(자살유혹)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은 강요된 독서의 대상인 『열녀전』류가 독자들에게 행하는 폭력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안내한다.

본고는 고전소설을 통한 문학치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론이다. 원래는 <운영전>과 더불어 <숙영낭자전>, <양산백전>을 아우를 계획이었다. 일군의 애정소설들에서 감각을 자극하는 통속물의 차원을 넘어 치유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운영전>이 슬픔과 우울이 어우러진 극단적 절망감에 의한 자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면, <숙영낭자전>에서 숙영의 죽음은 처절한 복수심에 의한 자살 즉 복수를

53) 조셉 골드, 앞의 책, 342쪽.

54) 조셉 골드, 앞의 책, 8~9쪽.

55) 이덕무, 앞의 책, 183쪽.

56) 채제공, 『樊巖集』권33, 「女四書序」.

위한 극단적 자해의 양상을 보이고, <양산백전>의 추양대는 낭만적 회구에 의한 자살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각각의 자살 심리는 그저 일람하는 독서로는 읽어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한 작품을 꼼꼼히 파악하는 데도 지면이 부족하다. 다른 작품들은 추후 논의에 부치기로 한다.

참고문헌

- 이재수 본 <운영전>, 김일렬 주해, 형설출판사, 1982, 9~101쪽.
<운영전>, 박희병 표점 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소명, 2007, 333~383쪽.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2003, 188~212쪽.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38~60쪽.
김정근 외, 『체험적 독서치료』, 학지사, 2007, 14~573쪽.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9~174쪽.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서의 수용 전환』, 『판소리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263~288쪽.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11~294쪽.
이덕무, 권정원 역, 『책에 미친 바보』, 미다스북스, 2004, 5~339쪽.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63~174쪽.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지사, 2006, 3~285쪽.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9~234쪽.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28, 고소설학회, 2009, 71~103쪽.
정운채, 『<무왕설화>와 <서동요>의 주역적 해석과 문학치료의 구조화』,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2001, 215~233쪽.
_____,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

- 어문학회, 2004, 173~203쪽.
- _____,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2004, 103~126쪽.
- _____, 『고전시가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조명』, 『한국시가연구』 10, 2001, 331~352쪽.
- _____, 『문학치료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겨레어문학』 39, 겨레어문학회, 2007, 87~105쪽.
- 정출현, 『<운영전>의 증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 2003, 117~156쪽.
- 정환국,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 소명, 2005, 305~312쪽.
- 시모조노 소우타, 이수진 역, 『사람은 왜 죽고 싶어하는가』, 홍익출판사, 2004, 6~245쪽.
- 조셉골드,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 북키앙, 2003, 5~376쪽.
-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역, 『자살』, 이끌리오, 2002, 4~188쪽.

ABSTRACT

Comments about suicide psychology of Woonyeong and
<Woonyeong-jeon>'s hope for a healing text.

Kim, Soo-youn

This is a paper on a general opinion about a classic story <Woonyeong-jeon> and its possibility for healing text. This study is subject to its nowness and especially I have possibility in mind that mental agony of people today can be cured by a classic story. This story is built around Woonyeong's suicide and it ended in tragedy. There will not be one reason what caused her to commit suicide. Mixed emotions related to her growing up affects her suicide. Woonyeong left her parents when she was thirteen and started living in the court. As she was growing up she reached her scholastic achievements, but she realized that they are useless things for her. She finally has lost all sense of direction in her life and melancholy feelings crept ever her. She tried to look for a new way out, meanwhile, she met Kim-jinsa and fell in love but her love for him did not come about. Even though she was a court lady, Woonyeong thought it's not a sin to love someone other than a royal family. Ahnpyeong-deagun, King Sejong's third son had favored and trusted her. So she felt guilty about giving away the love he gave her. Eventually, she killed herself and she said sorry about her deed as she left. She had been under a lot of pressure and put the blame for all situation on herself, so these feelings drove her to despair.

The tragedy in <Woonyeong-jeon> can function as a curer on depression or suicidal tendencies. It's because <Woonyeong-jeon> describes delicately various human psychology beyond the simple structure of comeuppance and it made up of a process confirming emotions that arise in every situation. Reading the tragic story, in the process, readers face up to

their mental agonies and they can find out the cause of them. As they brought cheer to grieving Woonyeong, relatively they feel less tragic about their circumstances. Reading process is analogous to that of conversation. It can be a psychotherapy telling someone their troubles or listening to someone's troubles like them. In the process of their reading, they can have a chance to heal their pains through talking to a character who are in the same boat. Reading a novel can't be laid a person under necessity. So you can be flexible in a mood of melancholy that comes in and out. Readers can give vent to and relieve a lot of emotional baggage by describing their 'feelings' that is hard to put into words. This is a novels' trait that most normative papers with educational purpose don't have.

Key Words <Woonyeong-jeon>, suicide, healing text, melancholy feelings, The tragedy, mental agony.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